

## 누란(樓蘭) 복식 연구

- 고대 한국복식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

채금석 · 김은경<sup>+</sup>\*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박사수료<sup>+</sup>\*

### A Study on the Costume of Loulan

- Centered Around Interrelationship with Ancient Korean Costume -

Keum-Seok Chae · Eun-Kyoung Kim<sup>+</sup>\*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Completed Doctoral Program, Dept. of Clothing &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sup>+</sup>  
(2016. 7. 17 접수; 2016. 9. 11 수정; 2016. 9. 13 채택)

### Abstract

Loulan was an ancient kingdom located on the northeast of the Taklamakan Desert, a diverging point between the north and south of Silk Road, on the east of the current Turpan, from the 2nd century BC and the 7th century A.D, absorbing and propagating culture of both sides through active trade.

Meanwhile, as many previous research investigations suggest the early trade between Korea and the countries bordering on Western China, characteristics of Loulan costume have been found to have similarity to those of ancient Korean costume. Also, it can be compared to costume in other surrounding regions. Therefore, it is a highly valuable region in researching ancient costume.

This study examined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Loulan and its relationship with ancient Korea, analyzed the clothes found in historic sites of Louland and Niya, and compared costume elements of Loulan and those of Korea.

The result of the study shows that first, the Loulan Jeogori was based on the Jikryeonggyoim, with Chaksu, narrow sleeves and the length coming between below the chest and above the bottom, and the line decoration and waist belt were very similar to Korean costumes, as well as the Banryeong, curved collar and Bansu, short sleeves. Second, the types of pants included Gunggo, characterized by closed bottom and many creases, and Daegugo, wide-leg trousers, which are very similar in shape to the Korean Shilla lay sculpture, Stele To Martyr Yi Ch'a-don, Yangjikkongdo and Wangheedo. Third, in accessories as well, the Jowu stuck on the Gwanmo is similar in the shapes to Korean costume.

*Key Words:* Loulan(누란), Silk Road(실크로드), Niya(니야), Costume(복식)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누란은 B.C. 2세기~A.D. 7세기까지 실크로드(Silk Road)의 남도와 북도가 갈라지는 분기점인 타클라마칸(Taklamakan) 사막의 북동쪽, 지금의 투루판(Turpan, 吐魯番) 동쪽에 위치하여 동·서로를 연결하는 실크로드의 요충지로서 번영을 누렸던 고대국가이다. 지리적 요건 때문에 주변국에게 표적이 되었던 누란은 B.C. 77년 한나라에게 복속되면서 국명이 선선(鄯善)으로 고쳐 불려졌다. 그러나, 1~5세기 중반까지 여러 오아시스 국가를 합병하고 동·서무역의 중심지로 활발한 교역을 통해 동·서간의 문화를 자극했을 뿐 아니라 누란 스스로도 양측의 우수한 문화를 적극적으로 흡수, 재전파하였다.

한편, 일찍부터 한국이 서역과 교류했던 증거가 선행연구들(이운정, 정찬주, 2005)을 통해 제시되는 단계에서 누란복식의 형태적 특징에 있어 고대한국복식과의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고, 또 주변지역 복식과의 비교 또한 가능하므로 고대복식을 연구하는데 있어 사료적 가치가 있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서역의 누란복식과 고대 한국복식을 비교·분석하여 서로간의 유사점을 통해 한국복식에 대한 계보를 밝혀내는 실마리를 찾고 한국 복식문화의 원류를 실체에 보다 접근하여 세계복식 속에서 한국복식의 위상을 자리매김하는데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누란의 역사적 배경과 고대한국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당시 복식의 발달정도를 짐작 할 수 있는 누란, 니야 등의 유적지에서 발견된 복식들을 중심으로 상의와 하의로 나누어 상의(上衣)는 저고리(襦), 포(袍), 반수의(半袖衣)로, 하의(下衣)는 바지(袴)로 분류하여 그 형태를 관찰 한 후, 누란과 고대 한국복식과의 형태를 비교·고찰하여 그 상관성을 밝혀내고자 한다.

###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니야와 누란의 복식이 많이

출토되었던 1~7세기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연구 방법으로는 누란과 관련된 고서 기록과 선행논문, 복식사 관련서 등의 문헌과 누란의 유물 시각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 누란 복식관련 시각 자료로는 누란의 대표적 유적 중 복식형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누란과 니야지역의 민풍 니야1호 동한위진묘(1~3세기), 니야 95MN 1호묘(2~5세기), 누란 고성 (2~5세기)의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누란복식과 고대 한국복식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 누란과 동시대에 존재했던 삼국시대의 생활상이 반영된 고구려 고분벽화 및 토용 등에서 발견되는 복식을 분석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지리적 배경

누란은 타클라마칸 사막의 북동쪽, 지금의 투루판 동쪽 약 90km 지점에 있던 고대 국가이다. 누란은 서역 남도와 북도가 갈라지는 분기점에 위치해 있으며 중국에서 가장 저지대인 투르판 다음으로 낮은 곳이어서 타림 분지를 흐르는 거의 모든 하천이 누란의 로프노르(Lop Nor) 호수로 모였다(이주형 외, 2007). 당시 오아시스는 이 로프노르 호수의 물을 수원으로 하는 타림강의 줄기를 따라 번영하였다.

누란은 로프노르 호수로 인해 수원은 매우 풍부하였지만, 주변이 사막으로 이루어져 토지개발이 용이하지 않아 다른 나라의 토지를 빌려 작물을 수확하고 이를 자국에 반입했다. 『한서(漢書)』 서역전(西域傳)에 '누란은 염분이 많은 모래에 뒤덮여 농경지가 귀하고 목축에 종사하며 수조를 따라 생활한다. 또한 노새를 기르고 낙타가 많으며 전쟁에 능하다.'고 기록(이주형 외, 2007)하고 있어 당시 유목생활을 하였음을 짐작 할 수 있다. B.C. 2세기~A.D. 4세기의 누란왕국의 생활문화는 이란 문화를 기초로 헬레니즘과 불교문화가 보급되어 있었으며 토하라인(이란계), 소그드인, 월씨, 흉노 등의 모든 민족이 섞여 살고 있었다(이주형 외, 2007).



〈그림 1〉 선선의 지리적 위치.

(출처: 고려불화 실크로드를 품다 (p.192) 김영재, 2004, 서울: 운주사)

## 2. 역사적 배경

누란이 역사에 처음 등장한 것은 B.C. 176년 흉노의 목목칸이 한(漢)의 무제(武帝)에게 누란을 비롯한 26개의 나라를 흉노로 복속시켰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오면서이다(김영중, 2009). 이 기록을 통해 당시 누란은 이미 흉노에 속국이 된 상태였으며 이 시기 이전부터 존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누란은 적어도 B.C. 2세기 이전에 건국(김용범, 2008)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누란은 흉노에 복속되기 이전까지 실크로드의 남도와 북도가 갈리는 길목에 위치하여 동·서교통의 중심지로서 변영을 누리던 국가였다. 따라서 주변국가로서는 이러한 지리적 요건을 갖춘 누란지역을 차지하면 타림분지의 다른 국가도 쉽게 차지할 수 있었다. 따라서 누란은 B.C. 77년까지 한과 흉노의 표적이 되었으며, 결국 한에게 복속되어 선선(鄯善)으로 국명이 고쳐지고 중국의 영향하에 놓이기도 하였다. 또한 전한이 몰락해 한인들이 타림분지에서 세력을 잃게 된 사이 잠시 사차국(莎車國; 지금의 야르칸드, Yarkand)의 압력을 받기도 하였다. 2~4세기의 선선(누란)은 쿠샨(Kushan, 貴霜)의 관할 하에 있었으나 근방의 소완(小宛), 정절(精絕; 니야), 체르첸(Cherchen; 차말 且末), 용로(戎廬) 등 주변 오아시스 소국가를 합병하고 1~5세기 중반까지 전성기를 맞기도 하였다(김소현, 2003). 그러나 5세기 이후 로프노르의 수로가 이동하면서 호수와 맞붙어 있었던 선선(누란)은 물을 잃고 사막화되어가면서 644년경 이후 폐허로 변해버렸다(박경자, 1997).

〈표 1〉 누란의 역사적 배경

년대	역사적 배경
B.C. 176년	누란이 최초로 문헌 사기(史記)에 등장. (B.C. 2세기 이전 건국 추정)
B.C. 108년 ~ B.C. 77년	누란이 실크로드의 요충지(要衝地)로 한(漢)과 흉노(匈奴)의 표적이 됨.
B.C. 77년	한(漢)의 속국이 됨, 누란이 국명을 선선(鄯善)으로 고침
B.C. 61년	오아시스 국가 합병, 1-5세기 중반까지 전성기
A.D. 644년	멸망

## 3. 인종학적 배경

누란인은 아리아계에 속하며 인도 유럽계의 외모(김용문, 2005)로 검은 피부에 코가 높고 눈이 들어간 대체로 선이 뚜렷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1934년 스웨덴 고고학자 폴크 베르그만(Folke Bergman)이 타클라마칸 사막을 끼고 있는 중국 타림분지의 샤오허(小河)에서 발견한 누란의 미라를 통해서 증명되었다. 2010년 중국 지린(吉林)대학의 고고유전자 연구팀에서 발견한 미라의 DNA 유전자의 분석에 의하면 “다섯구의 남성미라는 서유럽의 혈통과 동유라시안의 혈통 DNA 모두를 갖고 있으며, 이는 당시 이민족 간의 결혼이 빈번했음을 시사하는 증거다(누란미라 4천년 비밀, 2010).” 라고 하여 당시 누란인이 서양과 동양의 유전자를 모두 지닌 혼혈이었음이 밝혀졌다.

## 4. 고대 한국과의 관계

고대 한국은 북방 유라시아 전역의 스키타이계 문화권에 포함되며 북방 역시 유고(襦袴)제인 스키타이계의 북방인 호복(胡服)으로서 한국복식의 원류를 스키타이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그 주변 중앙아시아 또한 고고학적 유사성을 근거로 문화 소통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신라의 혜초(慧超)가 여행했던 카슈카르(喀什), 투르판, 타클라마칸 사막의 서역 북도와 호

탄, 누란 등의 서역 남도, 동서 교류의 관문인 둔황(敦煌)에서 서안(西安)에 이르는 실크로드까지 광범위한 문화적 소통이 있었던 사실을 통해 고대 한국과 중앙아시아는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채금석, 2014). 우리나라 사회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던 불교 역시 초기의 도입은 목호지, 아도, 마라난타 등의 서역승에 의해 이루어(문무왕, 2014)졌는데, 실크로드 분기점에 위치하여 동·서를 잇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였던 누란이 바로 간다라지역에서 시작된 불교문화를 동아시아로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또한 중앙아시아와 동아시아의 교류를 짐작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란에서 출토된 모자(그림 2)인데, 이는 새 깃털이 달린 고깔형으로 이러한 형태는 북방 유목민족들이 수렵할 때 새의 깃털을 머리에 꽂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것이다(권영필, 김호동, 2007). 이처럼 모자에 깃털을 장식하는 형태는 한국 고대시대부터 존재하였던 변형모와 조우관에서도 볼 수 있는데, 고구려 무용총(그림 3)과 이현묘의 신라인에서도 조우를 꽂은 관모의 착용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삼국사기(三國史記)』 『위서(魏書)』 『북사(北史)』 『주서(周書)』 『수서(隋書)』 『구당서(舊唐書)』 『신당서(新唐書)』 등의 문헌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북사(北史)』 권(卷) 94 열전(列傳) 제(第)82 고구려(高句麗)에서 “인개두저절풍(人皆頭著折風), 형여변(形如弁), 사인가삽이조우(士人加插二鳥羽), 귀자(貴者), 기관왈소골(其冠曰蘇骨), 다용자라(多用紫羅) 위지(爲之), 식이금은(飾以金銀).” 즉, “고구려인들은 저마다가 고깔 모양의 절풍을 썼는데 사인들은 2개의 새 깃을 꽂았다.”(조운재, 2013)고 하여 그 존재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고대한국과 누란 및 실크



〈그림 2〉 누란 고깔모자, 누란고성, 2-5C.  
(출처: 실크로드와 한국문화, (p.72) 국제한국학회, 1999, 서울: 소나무)

로드와의 상관관계를 찾는데 있어 조우관은 고대 한국인의 정체성을 현시적으로 보여주는 차별적 문화로서 이를 통해 실크로드와의 연계성을 실증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 Ⅲ. 복식

#### 1. 누란의 복식

누란에 대해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누란, 미란, 차르크릭, 니야(尼雅: Niya)가 있으며, 이중 누란의 복식형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유적으로는 누란과 니야가 있다. 먼저, 누란은 『한서(漢書)』 서역전(西域傳)에서 말하는 선선국의 옛국명이기도 하면서 수도였던 우니성을 말한다. 또한 누란은 로프노르 호수 서쪽에 위치하며 신석기시대부터 많은 사람이 거주하였고 서역의 유적지 중 가장 많은 고분군이 남아 있다(이주형 외, 2007).

또한 니야는 선선(누란)에 병합되었던 오아시스 국가 중 하나인 정절국(精絕國)의 수도로서(권영필, 김호동, 2007) 현재 신장위구르자치구 호탄지구 민풍현 타클라마칸 사막 남쪽에 위치한 곳이다. 이에 대해 신장위구르자치구 박물관에 따르면, 니야는 3~4세기경 누란왕국의 오아시스 국가 중 하나로서 납세와 계약, 역전제도(驛傳制度) 등이 정립된 중앙집권국가였으며, 니야가 과거 선선의 관할하에 있었음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누란과 밀접한 관계에 있던 니야의 유적들은 누란의 생활상을 유추할 수 있는 좋은 근거 자료가 된다. 또한 니야의 출토복식과 직물은 신장에서도 가장 건조한 기후 덕분에 원형 그대로



〈그림 3〉 무용총, 5C.  
(출처 : 고구려 고분벽화의 세계, (p.189) 전호태, 2004,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그림 4〉 스키타인 저고리 B.C. 4C.  
(출처: 실크로드와 한국문화, (p.71)  
국제한국학회. 1999, 서울: 소나무)



〈그림 5〉 저고리, 니야1호  
동한위진묘, 1-3C.  
(출처: 니야의 출토복식연구, 김용문. 2005,  
한복문화학회지, 8(1), p.112)



〈그림 6〉 저고리, 니야1호  
동한위진묘, 1-3C.  
(출처: 전통한복과 한스타일, (p.44)  
채금석. 2012, 파주: 지구문화사)

출토되어 있으며, 당시의 복식문화 연구에 결정적인 자료가 되고 있으며, 1~3세기경 당시 서역남도의 복식문화를 잘 보여주므로(김용문, 2005) 누란 복식을 살펴보면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따라서 누란의 의복형태를 살펴보기 위해 누란과 니야지역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대상으로 누란의 의복을 상의와 하의로 분류하여 상의는 저고리, 포, 반수의를 중심으로, 하의는 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저고리(襦)

저고리는 둔부선 혹은 그 보다 더 긴 길이의 옷을 말하며 목선을 중심으로 끝은 깃의 직령(直領)과 둥근 깃의 반령(盤領)저고리로 나뉜다. 저고리는 다시 여밈에 따라 앞이 열린 전개형과 앞이 막힌 전폐형으로 나뉘는데, 누란에서 보여지는 저고리는 대개 전개(前開)형이다. 이렇게 앞이 열린 전개형의 의복을 일명 카프탄(caftan)형 의복이라고도 하며, 카프탄형 의복은 고대부터 동아시아의 여러 민족들이 착용해 온 대표적인 의복형태로 지금까지도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많이 착용되고 있다(이은진, 신혜성, 2013). 이는 북방유목민족복식의 시원이라 할 수 있는 스키타인의 복장(그림 4)에서도 발견된다.

또한 전개형 저고리는 여밈 방향에 따라 왼쪽으로 여미어 입는 좌임(左衽)과 오른쪽으로 여미어 입는 우임(右衽)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같이 직령의 깃을 좌우 서로 교차하여 겹쳐 여미어 입는다고 하여 이를 직령교임(直領校任)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전개형의 직령교임 저고리는 누란의 출토유물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형태로서 우임(그림 5)과 좌임(그림 6)이 혼재하여 나타났다.

한편, 소매는 일반적으로 소매통에 따라 대수(大袖)와 착수(窄袖)로 나뉜다. 소매통의 크기가 넓고 크면 대수, 소매통이 좁아 팔에 밀착되는 형태는 착수라하며, 이 외에 통수(筒袖)는 진동과 수구넓이가 비슷한 원통형의 경우를 말하는데(채금석, 2014) 이 역시 소매통의 넓이에 따라 대, 소가 있다. 소매배래에 따라 진동과 수구의 깊이를 고려할 때 진동에서 수구로 좁아지는 형태의 사선배래와 진동에서 수구 쪽으로 넓어지는 역사선배래가 있는데, 누란 저고리의 소매통은 호복의 전형적인 형태인 사선배래로 팔에 밀착되어 통이 좁은 착수형과 진동에서 수구까지 넓이가 비슷한 직선배래의 통수형(그림 7)이 나타났다.

저고리의 길이는 가슴선 아래부터 둔부선 길이까지 보였으며, 여밈은 대(帶) 또는 고름(그림 6)과 같은 끈이 달린 형태가 나타났다. 장식으로는 하의부분이 소실되어 상의부분만 남겨진 장수의를 통해서도 확인되듯이 앞길에 싯(그림 7)을 달거나 깃, 진동, 수구에 동색이나 이색선(그림 8)을 가하여 장식하였으며, 주로 견직물과 모직물이 출토되었다.

한편, 반령저고리는 목선이 둥근 깃의 저고리를 말하는데, 일명 관두의(貫頭衣)라고도 한다. 둥근 깃은 그 용어로 단령(團領), 반령, 원령(圓領) 등이 있는데 모두 반령으로 총칭하였다. 둥근 깃은 중국 고문헌에 상령(上領)이라 표기(문광희, 1987)되어 있고, 이는 진(秦), 오호(五胡) 이래로 중국 의관(衣冠)이 환란해지면서 침투되어 온 북위(北魏)의 별칭인 원위(元魏)의 복식제도이며 주(周), 수(隋), 당(唐)으로 인습되어 온 호복(胡服)이라 기록하였다(채금석, 2014). 또한 왕우청(王宇淸; 대만 전(煎)역사박물관장)은 '남북조 시대에 호복인 반령의와 좌임이 있었는데,



〈그림 7〉 장수의 누란  
고성, 2-5C.  
(출처: 大漢取珠 (p.62)  
东华大学出版社, 2007,  
上海: 东华大学出版社)



〈그림 8〉 M8 남성미라,  
니야 95MN 1호묘, 2-5C  
(출처: 니야의 출토복식 연구,  
김용문, 2005, 한복문화학회지,  
8(1), p.113)



〈그림 9〉 저고리,  
민풍 니야 1호묘 1-3C.  
(출처: 전통한복과 한스타일  
(p.46) 채금석, 2012, 파주:  
지우문화사)



〈그림 10〉 말국사,  
양직공도, 6C.  
(출처: 직공도 (양나라),  
(2015. 9. 25). 위키피디아.  
<https://ko.wikipedia.org>)

수당의 제왕이 북국에서 생겼기 때문에 북국적 반령의를 들여와 중국옷과 더불어 유행하였다' 라고 하며(Wang, 1976) 반령 저고리를 중국옷과 구분지어 둥근 깃이 중국에서 유래한 것이 아님을 시사하기도 하였다(채금석, 2014).

누란의 반령 저고리는 1~3세기 민풍 니야 1호 묘 출토복식(그림 9)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견직물의 저고리는 둥근 깃의 반령이 목 위로 올라온 스탠드 칼라(stand collar) 형태를 취하고 있다. 니야의 반령 저고리는 우입의 겨드랑이에서 수구쪽으로 소매가 점점 좁아지는 사선배래의 착수형이고 둔부선 길이로 깃과 수구에 가선이 달려 있다. 상하의가 따로 재단된 것으로 보이는 허리선의 절개와 여밈 부분에 작은 고름이 달린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반령 저고리의 존재는 2~4세기경 선선에게 합병되었던 체르첸의 후신인 말국(末國)의 사신(그림 10)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문헌기록으로 『양서(梁書)』 권(卷) 54 제이전(諸夷傳) 말국조(末國條)에 의하면 “전발저전모(剪髮著氈帽) 소수의위삼(小袖衣爲衫) 칩개경이봉전(則開頸而縫前)”라고하여 “머리는 자르고 전모(氈帽)를 쓰며 소매가 좁고 앞이 막힌 의복을 입었다.”고 기록(김소현, 2003) 하고 있어 앞이 막힌 전폐형(前閉型) 의상을 입었음을 알 수 있다. 깃과 밑단, 수구에 선 장식을 하였고, 허리에 대(帶)를 매었다.

2) 포(袍)

포는 저고리와 같은 형태에 길이가 좀 더 긴 형태로서 대개 무릎을 넘는 길이에서 발등을 덮

는 길이의 긴 겹옷이다. 포의 형태 또한 저고리와 같이 목선의 형태에 따라 곧은 깃의 직령과 둥근 깃의 반령으로 나뉘며 주로 발견되는 포의 형태는 앞이 트인 전개형의 직령포이다.

누란의 포 형태는 2~5세기 누란고성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그림 11〉의 영원히 뜻을 같이 한다는 의미의 ‘만세여의(萬世如意)’라는 명문이 들어간 금포(錦袍)는 전개형의 곧은 깃이 달린 직령교임포이다. 깃의 형태가 전체적으로 펼쳤을 때 앞 여밈이 맞닿는 대금(對襟) 형태로 보이지만 앞길의 오른쪽이 조금 더 큰 모습으로 보여 여밈이었을 때 좌입의 형태로도 짐작된다. 소매는 사선배래로 겨드랑이에서 수구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착수형이며, 포의 아래는 종 모양으로 퍼지도록 삼각형의 무가 달려있다. 또한 미세하지만 허리 부분에 끈을 달았던 흔적이 보인다(국립제주박물관, 2008).

〈그림 12〉의 장수견포(長袖絹袍)는 총길이 127cm의 직령교임포로서 우입(右衽)형이다. 소매는 사선배래의 착수형이며 소매의 길이가 220.4cm(东华大学出版社, 2007)에 달할 정도로 길다. 특징적으로 허리 이하 외측 부분에 가로 직사각형 형태로 6개의 슬릿이 들어가 있으며, 밑단 부분에 선장식이 갈색과 하늘색, 자주색 선장식이 되어 있다. 두 번째 〈그림 13〉의 장수견포 또한 직령교임포로 우입이며 앞 쉼 부분에 붉은색 선 장식을 하였다. 소매는 거의 소실되어 형태를 구분하기가 어려우며 밑단 부분에 녹색과 붉은색 갈색의 삼각형으로 패치워크 장식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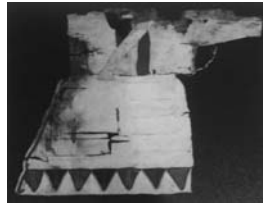
〈그림 11〉 누란 금포, 누란고성, 2-5C.

(출처: 실크로드와 한국문화 (p.72) 국제한국학회, 1999, 서울: 소나무)



〈그림 12〉 장수견포, 누란고성, 2-5C.

(출처: 大漠联珠, (p.62) 东华大学出版社, 2007, 上海: 东华大学出版社)



〈그림 13〉 장수견포, 누란고성, 2-5C.

(출처: 大漠联珠, (p.62) 东华大学出版社, 2007, 上海: 东华大学出版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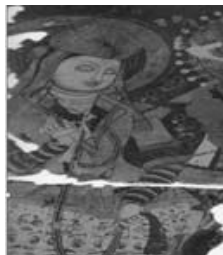
〈그림 14〉 채색견포, 누란고성, 2-5C.

(출처: 大漠联珠, (p.61) 东华大学出版社, 2007, 上海: 东华大学出版社)



〈그림 15〉 반수의를, 누란고성, 2-5C.

(출처: 大漠联珠, (p.60) 东华大学出版社, 2007, 上海: 东华大学出版社)



〈그림 16〉 황후, 키질 205굴.

(출처: 중국 미술전집 17, (p.74) 중국미술전집편집위원회, 2006, 북경: 문물출판사)



〈그림 17〉 국왕, 키질 199굴.

(출처: 중국 미술전집 17, (p.71) 중국미술전집편집위원회, 2006, 북경: 문물출판사)

한편, 깃이 둥근 반령포도 나타났는데, 총길이 120cm의 채색견포(彩绘绢袍)(그림 14)는 좌임이며, 소매통이 좁고 양 소매의 길이가 190cm(东华大学出版社, 2007)로 매우 길다.

따라서 누란에서는 곧은 깃의 직령포와 둥근 깃의 반령포가 존재하였고 우임과 좌임이 혼용되었으며 소매가 좁고 긴 사선배래형으로 유목민족 특유의 구성을 하고 있다. 또한 깃에 고름을 달거나 깃과 쇠, 수구, 밑단에 선 장식을 하였고, 허리에는 대를 매었다.

### 3) 반수의를(半袖衣)

반수의를에 대한 문헌기록은 없지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반소매의 옷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매가 달리지 않고 어깨선이 연장되거나 반소매가 달린 상의를 말한다.

누란의 반수의를는 누란고성에서 출토된 의복(그림 15)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견직물을 이용하여 하늘색과 빨간색으로 조화롭게 배색하여 만든 반수의를는 총길이 88cm의 직령교임에 우임

이며 소매가 25cm(东华大学出版社, 2007)로 짧고 소매 끝에는 주름을 넣어 장식하였다. 앞단에 단을 덧 대어 완전히 덮여 입는 형식이며 허리에 대가 달려 있고 상당히 장식적이다. 이러한 형태의 반수의를는 주변국인 서역북도의 쿠차에서도 볼 수 있다. 쿠차의 황후(그림 16)와 국왕(그림 17) 의상을 살펴보면 안에 내의로 착수형 의상을 입은 후 그 위에 반수의를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의상은 고대 한국의 고구려 고분 벽화 안악 3호분의 묘주 부인의 의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 모두 귀족에게 발견되었다. 따라서 당시 반수의를는 공통적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점을 미루어 보아 신분이 높은 고위층에서 외의로 입혀졌던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 4) 바지(袴)

누란의 바지는 밑에 당이 달리고 밑을 오므린 궁고(窮袴)와 밑을 오므리지 않고 통이 넓은 대구고(大口袴), 통이 좁은 착고형인 세고(細袴)로 나뉜다.

궁고의 형태는 B.C. 1세기 노인올라 출토 바지(그림 18)에서 그 모습을 통해 자세히 확인 할 수 있는데 가랑이 사이 밑에 당이 달리고 발목이 오므려진 형태이다.

누란의 궁고형 바지는 신강 위리현 고로극산 영반고묘에서 출토된 모직물로 만든 바지(그림 19)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가늘고 섬세하게 주름이 잡혀있고 발목을 모직물 끈으로 묶어 입어 밑을 오그린 형태이다.(국립제주 박물관, 2008).

한편, 통이 넓고 바지부리를 여미지 않은 직선적인 형태의 대구고는 1~3세기 니야에서 출토된 바지(그림 20)를 통해 확인된다. 걸감은 거친 면이고 안감은 가는 견으로 된 겹바지이다. 밑단은 견에 자수를 놓은 선을 대었으며 바지 밑에 당이 부착된 흔적이 있다. 저고리에서 살펴보았던 니야에서 출토된 M8 남성미라의 바지(그림 8) 또한 모직의 통이 넓고 직선적이며 밑단에 가선이 달리고 바지부리가 열린 대구고이다. 한편, 바지 부리가 좁은 세고도 발견되었는데 삼각형의 큰 당이 달린 여자 용 금(鏞)바지(그림 2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고대 한국복식

누란의 복식형태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김용문(2005)과 김소현(2003), 박경자(1997)가 있으며 한국복식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단계이다. 따라서 누란과 동시대에 존재했던 한국 복식의 상관성을 밝히기 위해 같은 시기에 존재했던 고구려, 백제, 신라에 이르는 삼국시대

의 의복형태를 고문헌 및 당시의 시대상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대표적 유물인 고구려 고분벽화와 토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국 고대복식을 누란복식과 같이 상의와 하의로 분류하여, 상의에 해당되는 저고리, 포, 반수지와 하의에 해당되는 바지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1) 저고리

고대 한국의 저고리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입혀졌던 대표적인 의복이다. 삼국시대 저고리에 관하여 고구려에서는 『북사(北史)』, 『수서(隋書)』, 『구당서(舊唐書)』, 『신당서(新唐書)』에 ‘대수삼(大袖衫)’, ‘삼통수(衫筒袖)’라 하였고(채금석, 2014), 백제에서는 ‘복삼(複衫)’, 신라에서는 ‘위해(尉解)’라고 기록하였으며 이들의 형태는 고구려의 벽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전지은, 2001).

고분벽화를 통해 당시의 저고리 형태를 살펴 볼 수 있는데 크게 목선이 곧은 깃의 직령(그림 22)과 둥근 깃의 반령(그림 23), 깃이 젓혀진 번령(鬪領)(그림 24) 저고리가 있다. 다시 여미에 따라 전개형과 전폐형으로 나뉘는데 전개형은 앞이 트여 있으면서 왼쪽으로 여미어 입는 좌임과 오른쪽으로 여미어 입는 우임으로 나뉘며 직령의 깃을 좌우 서로 교차하여 겹쳐 입는 직령(直領)교임형이다. 이러한 직령교임 형태의 저고리는 고구려(그림 22), 백제(그림 25), 신라(그림 26)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좌임과 우임의 형태가 모두 나타나 혼재하였다. 전폐형은 앞이 막혀있고 사선의 옷깃으로 마주 합쳐진 V자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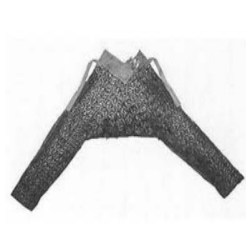
〈그림 18〉 견제바지, 노인올라, B.C. 1C.  
(출처: 전통한복과 한스타일, (p.83) 채금석, 2012, 파주: 지구문화사)



〈그림 19〉 모직바지 신강 위리현 고로극산 영반고묘, 6C.  
(출처: 전통한복과 한스타일, (p.96) 채금석, 2012, 파주: 지구문화사)



〈그림 20〉 바지, 민풍니아, 1-3C.  
(출처: 실크로드와 한국문화, (p.72) 국제한국학회, 1999, 서울: 소나무)



〈그림 21〉 M3 여성 바지, 니야 95MN 1호묘, 2-5C  
(출처: 니야의 출토복식연구, 김용문, 2005, 한복문화학회지, 8(1), p.112)





〈그림 22〉 무용총, 5C.

(출처: 고구려 고분벽화의 세계, (p.189) 전호태, 2004,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그림 23〉 감신총 인물도, 4C. 덕흥리고분, 5C.

(출처: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 (p.80)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2000,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그림 24〉 덕흥리고분, 5C.

(출처: 高句麗壁畫古墳 (p.139) 共同通信社, 2005, 東京: 共同通信社)



〈그림 25〉 양직공도, 백제사신, 6C.

(출처: 전통한복과 한스타일, (p.13) 채금석, 2012, 파주: 지구문화사)



〈그림 26〉 왕회도, 신라사신, 7C.

(출처: 전통한복과 한스타일, (p.98) 채금석, 2012, 파주: 지구문화사)



〈그림 27〉 안악3호분 부월수, 4C

(출처: 高句麗壁畫古墳, (p.70) 共同通信社, 2005, 東京: 共同通信社)



〈그림 28〉 덕흥리고분 13태수, 5C.

(출처: 전통한복과 한스타일, (p.164) 채금석, 2012, 파주: 지구문화사)



〈그림 29〉 안악3호분 묘주도, 4C.

(출처: 高句麗壁畫古墳, (p.76) 共同通信社, 2005, 東京: 共同通信社)

곶은 깃의 직령합입(채금석, 2014)(그림 27)과 둥근 깃의 반령 저고리(채금석, 2014)가 있다.

한편, 소매는 소매통의 크기에 따라 일반적으로 소매통이 넓고 큰 대수와 소매통이 좁아 팔에 밀착되는 착수로 나뉘며, 그 밖에 진동과 수구넓이가 비슷한 원통형의 통수가 있다. 고구려벽화를 통해 대수와 착수로 나뉘음을 알 수 있고 배래는 진동에서 수구로 좁아지는 형태의 사선배래와 진동에서 수구쪽으로 넓어지는 역사선 배래로 설명할 수 있다(김소희, 채금석, 2015). 길이는 대체적으로 엉덩이를 가릴 만큼 길며 전개형의 경우 허리에 띠를 두르고 깃과 수구, 단에 선이 가해져 있다.

2) 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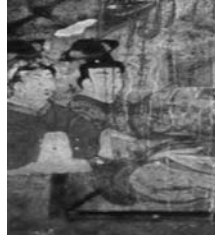
포는 저고리와 바지 위에 착용하는 외의(外衣)이다. 고구려의 포에 대한 직접적인 고문헌 기록은 보이지 않고 다만, 『사기(史記)』에 삼(衫)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무릎을 넘는 길이의 삼

은 포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제한국학회, 1999). 또한 『삼국지(三國志)』 부여전(夫餘傳)에 “재국의상백(在國衣尙白) 백포대메포고(白布大袂袍袴)”라고 하여 고구려의 모체인 부여인들이 포를 입었다는 기록을 통해 고구려에서도 포를 입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는 고분벽화의 포를 착용한 인물들을 통해서 그 존재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백제에서는 『구당서(舊唐書)』 백제조(百濟條)에 “기왕복대수자포(其王服大袖紫袍)”라고 하여 왕이 대수자포를 착용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백제에서도 포를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신라의 포는 『동사강목(東史綱目)』 법흥왕(法興王)의 방포(方袍)에 관한 기록을 통해 포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있으며 『남사(南史)』, 『구당서(舊唐書)』 등에서 신라의 복식이 고구려 및 백제의 복식과 대략 비슷했다는 기록을 통해서 고구려의 형태와 비슷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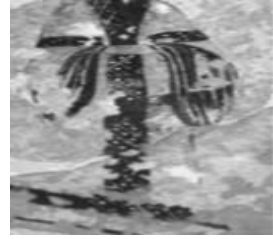
한편, 포의 형태에 대해서는 『석명(釋名)』에 “포(袍), 장부저(丈夫著), 하지부자야(下至跗者也).”라고 하여 포가 발등 정도 길이의 긴 겹옷임을



〈그림 30〉 안악 3호분 묘주부인, 4C.  
(출처: 전통한복과 한스타일, (p.126)  
채금석, 2012, 파주: 지구문화사)



〈그림 31〉 안악 3호분 묘주도 시녀들, 4C.  
(출처: 전통한복과 한스타일, (p.126)  
채금석, 2012, 파주: 지구문화사)



〈그림 32〉 개마총 귀부인, 6C.  
(출처: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Ⅱ, (p.124) 조선 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2000,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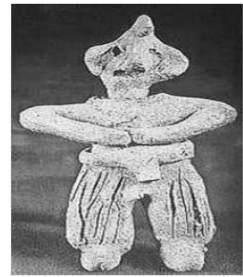
〈그림 33〉 왕회도 삼국사신, 7C.  
(출처: 전통한복과 한스타일, (p.98) 채금석, 2012, 파주: 지구문화사)



〈그림 34〉 각저총 귀족남자, 4-5C.  
(출처: 전통한복과 한스타일, (p.38) 채금석, 2012, 파주: 지구문화사)



〈그림 35〉 이차돈 순교비, 818.  
(출처: 전통한복과 한스타일, (p.94) 채금석, 2012, 파주: 지구문화사)



〈그림 36〉 남자 토우, 신라, 5-6C.  
(출처: 전통한복과 한스타일, (p.92) 채금석, 2012, 파주: 지구문화사)

알 수 있다(채금석, 2014). 따라서 포의 형태는 크게 목선의 형태에 따라 곧은 것의 직령, 둥근 것의 반령형으로 나뉘며, 여밈 역시 앞이 트인 전개형과 앞이 막힌 전폐형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앞이 트이고 곧은 것이 좌우로 여며진 형태인 전개형 직령교임 포(그림 28), V자 목선의 앞이 막힌 전폐형 직령함입 포(그림 29)와 둥근 것의 반령포가 있고 소매는 소매통이 작고 진동에서 수구쪽으로 좁아지는 사선배래의 착수, 소매통이 크고 진동에서 수구쪽으로 좁아지는 사선배래의 대수, 진동에서 수구쪽으로 넓어지는 역사선배래의 대수로 나뉜다(김소희, 채금석, 2015).

3) 반수의

고구려의 상의로 저고리, 포 외에 문헌상에 등장하지 않으나 벽화에서 볼 수 있는 반수의가 있는데 안악 3호분 묘주부인과 시녀, 개마총 귀부인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소매가 짧은 형태의

반수의는 안악3호분 묘주부인(그림 30)과 시녀(그림 31)와 같이 곧은 직선 것의 여밈을 교차하여 겹쳐 입는 직령교임형 반수의와 개마총 귀부인(그림 32)과 같이 깃을 교차하지 않고 앞 중심에서 맞닿게 입는 대금형 반수의가 있다.

4) 바지

고구려의 바지(袴)에 대한 기록으로는 『북사(北史)』에 “태구고(太口袴)”, 『수서(隋書)』에는 “대구고(大口袴)”, 『남제서(南齊書)』에서는 “궁고(窮袴)”, 『신당서(新唐書)』의 “고대구(袴大口)” 등이 있다. 백제의 바지에 관한 기록은 왕의 것으로 청금고라하는 것이 있는데 이는 통이 넓은 푸른색 금직의 화려한 바지라고 볼 수 있다. 양직공도에 묘사된 백제 국사도는 통이 넓고 밑단에 선을 두른 것을 볼 수 있다. 신라는 『당서(唐書)』 동이전(東夷傳) 신라조(新羅條)에 “남자는 갈고를 착용한다”고 기록하고 있어 고의 착용사실을

알 수 있다. 고문헌과 고구려 벽화를 통해 삼국의 바지 유형은 크게 대구고형과 궁고형으로 나뉘며, 그 밖에 짧고 험렁한 바지인 곤(禪)이 있다. 대구고형은 왕회도 고구려, 백제, 신라사신(그림 33)의 바지처럼 부리를 오므리지 않아 넓은 형태이다. 한편, 궁고의 '궁(窮)'은 '막히다'라는 의미로 각저총의 귀족남자(그림 34)와 같이 바지에 당을 달아 기마와 활동에 편리함을 주고 발목을 오므린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김소희, 채금석, 2015) 바지통에 따라 좁은 형과 넓은 형이 있다. 신라 이차돈 순교비(그림 35)의 바지는 주름이 많고 통이 매우 넓으며 발목을 오므린 형태이며, 경주 황남동 토우상(그림 36)은 비교적 주름이 적고 폭이 좁은 형태의 궁고 바지를 착용한 모습을 볼 수 있다.

#### IV. 누란복식과 고대 한국복식과의 상관관계

누란과 고대 한국복식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동시대 존재하였던 삼국시대의 벽화와 토용을 통해 비교·분석해 보았다.

##### 1. 저고리

누란 저고리의 기본형태는 앞이 트여 있는 전개형의 카프탄 형식으로 직령교입 저고리에 가선 장식을 하고 허리에 대를 하였다. 이러한 형태는 당시 고대 한국의 복식형태와 매우 유사함을 보여 동시대에 해당하는 고구려, 백제, 신라복식의 저고리 형태를 목선(깃), 여밈, 소매, 가선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누란의 저고리는 목선을 따라 직령과 반령으로 나타났다. 여밈은 주로 호복의 전형인 카프탄 스타일의 전개형으로, 좌입과 우입이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또한 소매통은 진동에서 수구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사선배래의 착수형과 진동과 수구의 넓이가 거의 같은 직선배래의 통수형 소매를 달고 저고리의 일부분에 덧 단을 대어 폭을 넓혀 입었는데 가슴부분이 겹쳐져 열리지 않도록 앞길에는 쇠를 첨가한 형태도 나타났고 끈을 따로 만들어 허리를 여며 입거나 저고리 전면에 달아 여며 입었다. 한편, 고대 한국은 남녀노소 모두 저고리를 입었으며 목선은 직령, 반령, 번령으로, 여밈은 앞이 열린 전개형과 앞이 막힌 전폐형으로 구분되었고 좌입과 우입이 혼재하였다. 소매형태는 일반적으로 대수형과 착수형으로 배래는 사선배래와 역사선배래가 나타났는데 역사선배래형은 개마총에서 극소수 발견되었다.

또한 누란과 고대 한국 모두 저고리의 깃과 밑단, 수구 등에 다른 색의 천으로 가선을 둘렀다. 다만, 누란에서 진동과 쇠에 추가적으로 가선의 흔적이 있었다. 이러한 선은 의복의 가장자리가 헤지거나 울이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신분과 계급을 표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을 것이다. 특히, 누란의 목선이 둥근 반령(盤領)형은 4세기의 감신총 인물의 복식을 비롯하여 주변 중앙아시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쿠차의 사신으로 추정되는 인물에서도 확인된바 있어 한국의 복식이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한 중앙아시아의 복식과 상관성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상 누란과 고대 한국 저고리의 형태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누란과 한국 저고리 형태 비교

	목선 형태	여밈 형태	소매 형태	가선 장식
누란	직령 반령	전개형 - 카프탄 스타일 교입형 (좌우입 혼용)	착수, 통수 사선배래 직선배래	깃, 진동, 수구, 밑단 - 가선 장식 (동색 또는 이색사용)
한국	직령 반령 번령	전개형 - 카프탄 스타일 교입형 (좌우입 혼용) 전폐형	착수, 대수 사선배래 역사선배래	깃, 수구, 밑단 - 가선 장식 (동색 또는 이색사용)

〈표 3〉 누란과 한국 포 형태 비교

	목선 형태	여밌 형태	소매 형태	가선 장식
누란	직령 반령	전개형 - 카프탄 스타일 교입형 (좌우입 혼용)	착수 사선 배래	깃, 섹, 수구, 밑단 - 가선 장식 (동색 또는 이색사용)
한국	직령 반령	전개형 - 카프탄 스타일 교입형 (좌우입 혼용) 전폐형	착수, 대수 사선 배래 역사선 배래	깃, 수구, 밑단 - 가선 장식 (동색 또는 이색사용)

〈표 4〉 누란과 한국의 반수의 비교

	목선 형태	여밌 형태	가선 장식
누란	직령	전개형, 교입형	깃, 수구, 밑단 - 가선 장식 (동색 또는 이색사용)
한국	직령	전개형, 교입형 대금형	깃, 수구, 밑단 - 가선 장식 (동색 또는 이색사용)

〈표 5〉 누란과 한국의 바지형태 비교

	바지통 형태	바지부리 형태
누란	좁은 형 - 착고 넓은 형 - 대구고	바지부리를 오픈형 - 궁고 바지부리를 오픈하지 않은 넓은 형 - 대구고
한국	좁은 형 - 착고 넓은 형 - 대구고	바지부리를 오픈형 - 궁고 바지부리를 오픈하지 않은 넓은 형 - 대구고

2. 포

누란과 고대 한국의 포 형태 또한 목선, 여밌, 소매형, 가선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누란의 포는 목선을 중심으로 직령과 반령으로 나뉘며, 이들은 앞이 열린 전개형으로 좌우로 여며 입은 교입형태로 나타났다. 소매는 대체로 진동에서 수구로 갈수록 좁아지는 사선배래의 착수형이며, 가선장식은 깃, 섹, 수구, 밑단에 동색 혹은 이색의 선 장식을 사용하였다.

한편, 고대 한국의 포는 목선을 중심으로 직령, 반령으로 구분되며 여밌은 전개형과 전폐형으로 나뉘었다. 즉, 좌우로 여며진 형태인 직령 교입형의 전개형과 앞이 막힌 직령합입의 전폐형으로 나타났다. 소매는 사선배래의 착수형과 사선배래의 대수, 역사선배래이며, 깃, 수구, 밑단의 가선장식은 길과 같은 동색이 사용되거나 이색 가선을 달았다. 이상 누란과 고대 한국 포의 형태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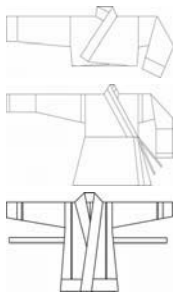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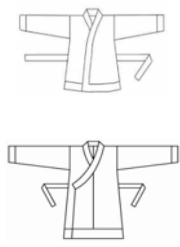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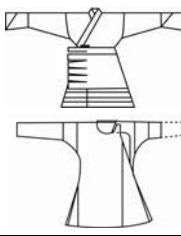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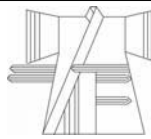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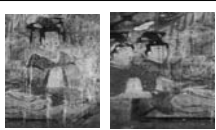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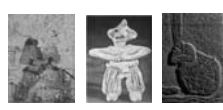





3. 반수의

반수의 형태는 목선과 여밌, 가선 유무를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누란의 반수의 목선은 직령, 여밌은 전개형으로 깃, 수구에 가선 장식이 달려 있었다. 고대 한국 반수의 목선은 직령이며, 여밌은 전개형으로 교입형과 대금형으로 나뉘고 깃과 수구에 이색 가선 장식이 달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반수의 형태는 주변 중앙아시아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한국의 복식이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한 중앙아시아의 복식과 상관성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상 누란과 고대 한국 반수의 형태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4. 바지

바지형태의 구분은 바지통과 바지부리의 형태, 당부착 유무를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누란의 바지는 먼저, 바지통의 너비에 따라 좁은 형과 넓은 형으로 나뉘며, 바지부리의 형태에 따라 바

<표 6> 누란과 한국복식의 디자인 비교

분류	누란		한국	
	유물	도식화	유물	도식화
상의	저고리			
				
	포			
	반수의			
하의	바지			
				
				

지부리를 주름잡아 오므린 궁고와 바지부리 입구가 열려 있는 대구고가 있다. 누란의 궁고는 주름이 상당히 많은 형태로 신라의 이차돈 순교비와 신라 토우 남자상에서 매우 유사한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바지부리가 열리고 통이 넓은 대구고 형태의 모습은 6세기 양직공도의 백제사신과 왕회도의 바지에서 보여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발목길이에 밑단 가선장식을 한 모습이 상당히 유사하게 보였다.

한편, 고대 한국의 바지 또한 누란과 같이 바지통이 좁은 형과 넓은 형으로 나뉘며 바지부리의 형태에 따라 궁고와 대구고가 있고 그 밖에 바지 길이가 짧고 헐렁한 곤이 있다.(채금석, 2014). 이상 누란과 고대 한국 반수의 형태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이상 누란과 고대 한국의 저고리, 포, 반수의, 바지 등에서 형태의 유사성을 보임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표 6>에 정리하였다.

## V. 결 론

본 연구는 누란의 복식형태를 분석하고 고대 한국복식과의 형태적 유사점을 비교·고찰하여 그 상관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첫째, 누란은 고대 동·서로를 연결하는 실크로드의 요충지로 번영을 누렸던 고대국가로서 동·서무역의 중심지로 활발한 교역을 통해 동·서간의 우수한 문화를 적극적으로 흡수, 재전파하였던 나라이다. 특히 누란에서 출토된 조우관은 고대 한국의 고구려 무용총, 이현묘의 신라인에서도 발견되어 조우관이라는 실체를 통해 고대 한국과 서역과의 연관성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둘째, 누란과 고대 한국복식과의 상관관계와 유사점을 찾기 위해 복식형태를 상의와 하의로 나누어 상의는 저고리, 포, 반수의, 하의는 바지의 세부구조를 살펴보았다. 먼저, 누란의 저고리는 전개형의 직령교임(直領校任)을 기본으로 소매가 좁은 착수의 가슴 아래선에서 둔부선 길이였으며 선장식과 허리에 대를 한 모습이 한국복식의 형태들과 매우 유사하여 공통적인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부가적으로 쉼, 무, 고름, 허리선

의 절개가 있었다. 또한 깃이 둥근 반령(盤領) 형태와 소매가 짧은 반수의(半袖衣)가 보였다. 반수의는 안악3호분의 묘주부인과 시녀들에게서도 볼 수 있어 한국과의 유사성을 찾을 수 있었으며, 이러한 형태는 쿠차와 같은 중앙아시아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한국의 복식이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한 중앙아시아의 복식과 상관성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바지는 크게 궁고와 대구고가 보였는데 밑이 막히고 주름이 많은 궁고의 형태와 통이 넓은 대구고 형태가 고대 한국의 신라토우, 이차돈 순교비, 양직공도와 왕회도의 형태와 매우 유사하며 공통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한국복식의 원류는 북방기마민족인 스키타이계의 호북문화에 두고 있으며 복식유형이 앞이 트인 카프탄 스타일의 전개형 저고리와 바지를 입는다는 점에서 누란의 복식과 한국 복식이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두 나라 모두 한족문화와는 다른 북방유목기마민족 복식문화권 내에 속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유사점은 지리적으로 중요한 교량역할을 하였던 누란이 주변 아시아 국가와의 끝없는 교섭과 융화과정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도 사료된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발굴된 유물을 중심으로 비교·고찰한 것이다. 사실 누란은 역사가 짧고 이미 폐허가 되어 사라져 버린 국가로 이에 대한 사적자료가 턱 없이 부족하며 연구 또한 활발하지 않은 탓에 자료의 한계가 있었음을 밝혀둔다. 누란은 미지의 지역으로 아직도 발굴되지 못한 자료가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새롭게 발굴될 자료와 함께 한국 복식문화권에 관한 연구를 보완할 것이다.

현재 동·서양 문화가 오고가는 매개체 역할을 하였던 실크로드의 오아시스 국가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들과 한국과의 관련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앞으로도 한국과 관련한 누란 이외에도 실크로드 오아시스의 주변국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 참고문헌

- 권영필. (2011). *문명의 충돌과 미술의 화해*. 경기: 두성북스.
- 권영필, 김호동. (2007). *중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 서울: 솔.
- 국립제주박물관. (2008). *실크로드의 역사와 문화*. 서울: 서경문화사.
- 국립중앙박물관. (2003). *서역미술*.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 국제한국학회. (1999). *실크로드와 한국문화*. 서울: 소나무.
- 김영중. (2009). *실크로드, 길 위의 역사와 사람들*. 경기: 사계절.
- 김영재. (2004). *고려불화: 실크로드를 품다*. 서울: 운주사.
- 김용범. (2008). *역사로 읽는 실크로드의 문화*. 대전: 보성.
- 김용문. (2005). 니야의 출토복식연구 - 5MN1호묘를 중심으로. *한복문화학회지*, 8(1), 109-120.
- 김소현. (2003). *호복*. 서울: 민속원.
- 김소희, 채금석. (2015). 고구려와 선비족 의복 형태 비교 연구 - 복위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7(2), 63-78.
- 누란미라 4천년 비밀. (2010, 3, 19). 매스타임즈. 자료 검색일 2014. 9. 5, 자료출처 [http://www.mest.kr/sub\\_read.html?uid=8226](http://www.mest.kr/sub_read.html?uid=8226)
- 문광희. (1987). *한, 중 단령의 비교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무왕. (2014). 신라 불교문화 원형 연구 - 실크로드와 경주를 중심으로. *한국미술사연구소* 43, 173-203.
- 박경자. (1997). 누란왕국의 출토복식에 관한 연구. *중앙아시아학회지*, 2, 93-110.
- 이윤정, 정찬주. (2005). 고대 우리나라 의복에 미친 서역 의복의 영향. *한복문화학회지*, 8(2), 47-62.
- 이은진, 신혜성. (2013) 중국 고대(古代) 카프탄(Caftan)형 의복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9(2), 423-432.
- 이주형, 임영애, 김인규, 이미림, 박형국. (2007). *동양미술사(下)*. 서울: 미진사.
- 진지은. (2001). 우리나라 服飾과 西域服飾間의 共通性에 關한 研究. *패션비즈니스학회지*, 5(4), 127-143.
- 전호태. (2004). *고구려 고분벽화의 세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조운재. (2013). 古代 韓國의 鳥羽冠과 실크로드. *선사와 고대*, 39, 121-146.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2000).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직공도 (양나라). (2015, 9. 25). 위키피디아. 자료검색일 2016. 3. 14, 자료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C%A7%81%EA%B3%B5%EB%8F%84\\_\(%EC%96%91%EB%82%98%EB%9D%BC\)](https://ko.wikipedia.org/wiki/%EC%A7%81%EA%B3%B5%EB%8F%84_(%EC%96%91%EB%82%98%EB%9D%BC))
- 채금석. (2012). *전통한복과 한스타일*. 파주: 지구문화사.
- 채금석. (2014). 백제 복식 유형별 형태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8(1), 1-18.
- 共同通信社. (2005). *高句麗壁畫古墳*. 東京: 共同通信社.
- 东华大学出版社. (2007). *大漠联珠*. 上海: 东华大学出版社.
- 中國美術全集編輯委員會. (2006). *中國美術全集 17*. 北京: 文物出版社.
- Wang, W. C. (1976). *龍袍 [Dragon robe]*. Beijing: Museum of Chinese History.